

일주문



'자기완성의 길' 법문
서암 전 조계종 종정은 3월 4일 서울 보현선원에서 '위대한 자기완성의 길'을 주제로 법문한다.



2월 다보법회 법문
도법실상사 주지는 28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미얀마에 컴퓨터 기증
지원삼보사 주지는 11일 미얀마 교육부를 방문해 컴퓨터와 프린터를 기증하고 두 나라 문화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자아와 명상' 강의
도요 경주 자은사 주지는 3월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학관에 출강, '자아와 명상'을 주제로 강의한다.



장학금 3천만원 전달
서문각 무애문화재단 이사장은 17일 불교방송국 공개홀에서 중·고·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 3083만원을 전달했다.



국회도서관과 정보협정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2일 국회도서관 최문후 관장과 지식 정보 공유를 위한 학술정보 협력 협정을 맺었다.



박물관의 역할·기능 강의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15일 거제박물관대학 대강당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강의했다.



월드컵 문화단체
이태행 전 불교TV 방송본부장은 지난 1월 26일 2002년 월드컵 조직위 문화행사 추진단장으로 임명됐다.



불교문화대학원 입학
설동근(사진 위) 부산시교육감과 강선태(사진 아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올해 신설된 불교문화대학원 학장·도임스님 지도자 과정과 정규과정에 합격했다.



불교문화대학원 입학
설동근(사진 위) 부산시교육감과 강선태(사진 아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올해 신설된 불교문화대학원 학장·도임스님 지도자 과정과 정규과정에 합격했다.

"인도·제3세계 구호 앞장"

신사년을 뛰는 우바이 ⑥

한국 JTS 사무국장 이지현 씨



"올해는 인도 및 제3세계 개발구호사업의 현지화에 주력할 방침이에요. 아울러 시골 마을 노인들의 그룹 홈 만들기 등 노인복지사업도 시작할 생각입니다."
한국 JTS 이지현(39) 사무국장은 JTS가 벌이는 4대 사업 중 인도·제3세계 및 북한 개발구호사업과 중국동포 돕기, 국내복지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회원확대와 모금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확대한다는 것이 올해 목표다. 해외 구호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인도에 현지법인화를 추진해 제3세계 개발구호사업의 중심센터로 키울 계획이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개원한 지바카병원을 활성화하고 중·고등학교 2층 건물과 게스트 하우스, 대강당을 신축하며 몽고의

어린이 개발사업, 미얀마 난민 어린이 교육 및 무료급식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예산액 16~22억원의 70%를 투입하는 북한 개발구호사업은 기존의 나진 선봉지역 어린이 영양식 공급을 온실 지대로 공급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식목 기술 및 비료지원을 지속하면서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두배로 늘일 방침이다. 국내복지사업 분야는 년 3회 교회소 및 대안학교 청소년 심성수련을 실시하고, 실직자 수련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처음으로 울산 근교 복안리 5가구에 노인 그룹 홈을 운영한다. 숙명여대 80학번으로 오랫동안 대불련 활동을 해 온 이 국장은 9년 법륜스님의 <실천적 불교사상의 신앙지침>이란 책을 보고 정토회와 인연이 되었다. 이후 정토불교대에서 청소년포교를 담당 해 온 이 국장은 3년전부터 JTS의 실무 중책을 맡아, 남편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과 함께 눈·코를 새 없애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재경 기자(jkim@buddhopia.com)

"법 몰라 억울한 서민 없어야죠"

무료 화상법률상담 이종오 변호사



"동체대비하는 마음으로 상담 신청자들의 법률적 고통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일부터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무료화상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종오(51) 변호사는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 고교에선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민사를 비롯해 형사 및 가사사건까지 모든 법률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은평 중앙 구청 등에서 90년부터 7년 동안 무료 법률상담의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법을 제대로 몰라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화상상담은 얼굴을 마주보며 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를 불문하고 상담을 받기 때문에 포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금강경> <화엄경> 등 경전을 비롯한 불서를 2천여 권 이상 읽었을 정도로 불심도 돈독하다. 이 변호사는 법률적 상담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함께 나누는 인생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간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에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무료 법률화상사이트(law.buddhopia.com), 현대불교신문(www.buddhopia.com), 일간 인터넷 붓다뉴스(buddhanews.com)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22-4162 김주일 기자(jkim@buddhopia.com)

"관광보다 민족영산 더 소중"

한라산케이블카 반대 도민연대 대표 광조 스님



"한라산은 백두산과 함께 민족의 성산으로 제주도민은 물론 우리 국민이 추앙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손때가 가장 적게 묻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자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라산케이블카 반대 도민연대 상임대표 광조스님(관음사 부주지, 조계종 총회위원)은 제주도 당국이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서를 낸 12일 "한라산을 그대로 두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곳은 영실에서 뿔오름새에 이르는 3.5km 구간. 영실과 뿔오름새 구간에 대형 철주 25개가 세워지고, 두 지역에 각각 1만평씩을 파헤쳐 승·하차장을 들어서게 한다는 계획이다.

광조스님은 "영실에서 뿔오름새 구간은 한라산의 심장부로, 자연생태계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며, 제주도민들은 이곳에 한라산 영기가 머처있다고 믿고 있다"며 관광 사업을 위해 제주도민의 소박한 믿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인공적인 것에 환멸을 느끼는 지 오래 됐다. 한라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둘러보는 눈으

기꺼리로 만들려는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조스님은 또 관광 수익의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지인이 한라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2박을 하며 제주도에 머물러야 한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체류 기간이 짧아져 전체적인 관광 수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형 그대로의 한라산으로 보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아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한 광조스님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할 경우 불자들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좋은벗풍경소리 총재·대표 취임법회

좋은벗 풍경소리는 1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총재 및 대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현 스님(량사 주지)과 덕신 스님(장경사 주지)이 새 총재와 대표로 각각 임명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 스님 등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평불협 창립 9돌 기념법회·정총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공동회장 법사는 12일 서울 송현클럽 금강산실에서 창립 9돌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를 겸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사 스님은 '남북불교 3단계 통합론(교류협력→연합→통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총재로 추대됐다.



일념장학회 장학금 1천만원 전달식

일념장학회 이사장 임대재는 9일 영광에서 사랑방에서 제6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71년 경봉 스님의 원력으로 창립하여 중앙승가대, 김해교도소, 수재의연금 등에 도움의 손길을 보낸 일념장학회는 이날 중앙승가대 원행 스님, 김태주 동아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19명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불교 법사대학 법사품수 법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총재 도암)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안중철)은 11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제9회 졸업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대승종 종정 도암 스님과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도암 스님은 '법사의 가치관을 투철히 확립해 끊임없이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올해는 모두 60명이 법사법위를 받았다.

2001학년도 (남·여) 제 11기

영·유아 보육교사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

모집인원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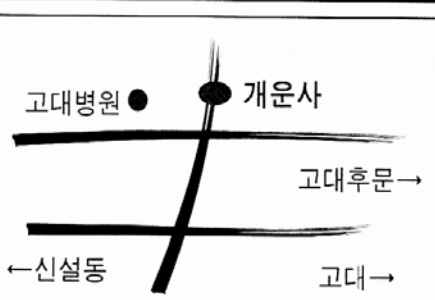
Table with 6 columns: 과정, 구분, 모집인원, 수업기간, 수업시간, 대상. Rows for 양성과정 (오전반, 야간반).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에서 직접접수(토·일 접수가능)
● 구비서류
1) 반명함판 사진 - 4매
2) 주민등록등본(초본) - 1통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1부
4) 입학원서 작성(본 교육원에서 배부)

- 등록금 931,000 원
등록처 본 교육원 교학과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 특전 1. 무시험검정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 (보건복지부 장관)
2. 관인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교사로 근무 및 직접운영(40인 미만)
3. 방과 후 아동지도반 운영 및 지도 교사로 취업
4.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특별전형

- 5. 재학중 아르바이트 알선과 수료후 취업알선
6. 해외 유아교육기관 탐방(희망자)
7. 클래식피아노 정규과목으로 책임지도
8. 레크리에이션, 종이접기 자격 동시취득
9. 지하철 이용시 "할인혜택"
◆ 버스(개운사입구) : 38번(적색) 803번
◆ 버스(안양로타리) : 7, 19, 28, 30, 34, 38, 154-1, 161
◆ 좌석 : 2, 28, 30-1, 154, 161
◆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돈암역(재일은행)앞 마을버스이용(고대병원과 개운사쪽)
◆ 지하철 1호선 신철동역(1번출구) 마을버스이용(개운사입구 하차)
◆ 지하철 6호선 안양역(2번출구) 도보 3분거리
※ 문의 : 교학과 02)929-5004, 02)926-9083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 02)929-5004, 926-9083